

프로야구



공, 그때는 어디있는가? 공도 달기 전에 이미 2루를 밟았다. 16일 광주 KIA전. 6-2로 앞선 4회초 2사 1·3루 삼성 신명철 타석 때 KIA 조태수의 폭투로 1루주자 강봉규(오른쪽)가 2루에 안착했다.

# 김광현 “나도 다승왕 욕심없다”

## 베이스볼 브레이크

괴물의 충격고백 왜?

지난해부터 팔꿈치 통증...수술도 고려  
이젠 부상 없이 야구 하는게 더 행복해  
2인자면 어떤가, 팀 우승만 생각...  
2인자 양준혁 선배, 최후엔 승리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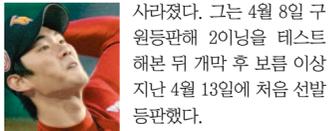
“다승왕 못하면 어때요. 전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한화 류현진에 이어 SK 김광현(22·사진)도 “다승왕에 굳이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광현은 16일 잠실 LG전에 앞서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몸이 좋지 않았다. 10승이나 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다. 올해는 정말 팔꿈치가 아파 늦게 시즌을 시작했는데 이 정도 성적을 올렸다는 데 만족한다. 요즘에는 아프지 않고 던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말했다.

● “병원선 괜찮다 했지만...공만 쥐어도 아팠다”  
김광현은 지난해 8월 두산 김현수의 타구에 맞아 왼쪽 손등뼈가 부러졌다. 그리고 조금 급한 마음에 복귀를 서두르다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야만 했다. 그때부터 생긴 팔꿈치 통증은 스프링캠프를 넘어 시범경기까지 이어졌다.

“지난 겨울에 병원에 가면 괜찮다고 해서 한 달을 쉬고 던져봤는데 아팠다. 또 병원에 가면 괜찮다고 해서 3주 쉬고 던져봤는데 또 아팠다. 나중에는 공만 쥐어도 아팠다.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것 같다. 이렇게 오래 아파본 적이 없어 솔직히 수술을 해볼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막 후 통증을 참고 던져봤는데 이후 아프지 않았다. 날씨가 풀리면서 통증은



● “2인자도 상관없다. 팀 우승만 생각한다”

그는 이날까지 29경기(선발 28경기)에 등판, 179이닝을 던지면서 16승6패, 탈삼진 170개, 방어율 2.36을 기록 중이다. 다승 부문에서 한화 류현진, KIA 양현종과 공동 1위지만 탈삼진과 방어율은 류현진에 이어 2위, 스투홀도 3위다.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타이틀은 다승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나도 다승왕을 못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준혁 선배도 항상 2인자였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나중에는 최고의 위치에 섰다. 무리하지 않겠다. 오랫동안 부상없이 야구를 하다보면 나중엔 더 좋은 결과가 올지 모른다”며 웃었다.

● “양준혁 선배 은퇴식 정면으로 승부할 것”  
19일 대구 삼성전 선발투판이 예정되어 있는 김광현은 “팀 1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시즌이지만 삼성전까지는 무조건 집중해 반드시 이겨야한다”고 눈빛을 번뜩였다.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양준혁 은퇴식. 김광현은 “내가 프로에 들어와 첫 홈런을 양준혁 선배에게 맞았다. 존경하는 선배지만 피해가지 않겠다. 정면으로 승부하겠다. 그게 선배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김성근 감독님이 투수는 통글어지면 안된다. 날 카로워져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이면 투수로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며 최고의 공으로 양준혁을 상대하고, 경기에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잠실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p><b>키 플레이어</b></p> <p><b>정근우 SK</b> 구장: 잠실 · LG전 상황: 4-1로 앞선 6회말 2사 만루, 오지환 땅볼 잡은 유격수가 2루 토스할 때 베이스캐치 하지 않아 대량실점 범비</p> <p><b>한줄평:</b> 김성근 감독님! 오늘은 적군 사인 홈치기가 아니라 야구 사인이 안 맞았네요</p>	<p><b>레딩 삼성</b> 구장: 광주 · KIA전 상황: 선발등판 5이닝 6안타 6삼진 2볼넷 2실점. 국내내무대 7경기 만에 첫승</p> <p><b>한줄평:</b> 가까스로 체면 살린 메이저리거. 한국시리즈 향한 삼성의 마지막 퍼즐완성?</p>
--	---

www.chunho.net

전문화와 함께 만드는 **천호식품**

**매일 매일 천호통마늘진액**

천호식품 080.789.1005

기사제보 0212020-1064  
구독신청 1588-2020

## “아픈 세월 딛고 첫 PS...자신있다”

### ■두산 원포인트리프트 기대주 김창훈

“수술·어머니 죽음...이제 야구만”

“포스트시즌에 좌완 원포인트리프트 프로 기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김경문 감독).”

최근 두산 코칭스태프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선수는 김창훈(25·사진)이다. 올해 이대수가 한화로 트레이드될 때 조규수와 함께 두산 유니폼을 입은 그가 가을잔치를 앞두고 불펜기대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7.2이닝 3안타 8삼진 1볼넷 방어율 2.35. 비록 8경기밖에 출장하지 않았지만 안정된 투구내용을 보이며 합격점을 받았다. 2번의 수술과 어머니의 죽음 등 질곡의 세월을 보낸 후 “이제야 제대로 야구를 하게 됐다”는 김창훈은 “요즘 야구가 재미있어지고 있다”며 웃었다.

김창훈은 2004년 4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으로 한화에 입단했지만 다음해 어깨 인대가 찢어져 수술대에 올랐다. 1년 재활 끝에 2006년 다시 마운드에 올랐지만 복귀 첫 경기에서 이번에는 팔꿈치 인대가 끊어졌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투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고 말했다. 김창훈은 계속된 시련에 야구를 포기하려고 했다. 흔들리던 그를 다잡아준 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2년간 공익근무를 하게 된 아들과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장 출근도장을 찍을 정도로 열성적인 지지자다. 김창훈이 고등학교 때 대전에서 신문사 지사장으로 일하다가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아버지의 헌신에 김창훈도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다시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묵묵히 땅방울을 흘렸다. 소집해제 후 김창훈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한화에서 두산으로 트레이드된 것이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준 두산에 보답하겠다”며 이를 약문. 그는 스스로 생애 첫 포스트시즌 출장의 가능성을 열었다.

김창훈은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엔트리에 들어도 죄를 짓는 기분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즐김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리고 “감독님의 믿음에 꼭 보답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한가위 선물을 한가득 모았습니다**

올 추석에도 실속 있고 다양한 델몬트 선물세트로 고마운 마음 한가득 담아 드리세요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 델몬트 선물세트**

<p>1.5 PET 프리미엄형</p> 	<p>종합 선물세트 1호</p> 	<p>1리터 2본입(오렌지, 포도)</p> 
---	---	---

델몬트 선물세트로 휴도관광의 기회를 선물하세요!

**“델몬트 무경 뒷면의 형운번호를 응모하세요!”**

- 응모기간: 2010년 9월 1일 ~ 10월 10일
- 행사내용: 1등 - 동남아 발리 2인 여행상품권 5명, 2등 - 제주도 2인 여행상품권 10명, 3등 - 국내 영문여행 2인 여행상품권 20명
- 응모방법: 무경 뒷면의 형운번호 8자리를 롯데쇼핑몰 홈페이지 접속 후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세요.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호도관광의 기회를 드립니다(채널은 별도 공지 사항 부합).
- 행사문의: 02-3479-9372 / 델몬트 호도관광 이벤트 담당자 www.lotteshopping.co.kr/참조



받는 분의 건강까지 함께 담아드리세요

**활삼 선물세트**



활삼 100ML 병 20본입      명절 활삼 혼합형 100ML 병 15본입      명절 활삼 햇개마늘 100ML 병 10본입

구매문의: 02.3479.9372~3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